62괘 - 뢰산소과 - 221122

전체 : 소과小의 길은 형통하다. 이로운 것은 정貞하는 것이다. 소사小事는 가하고 대사大事는 불

가하리라. 날아오른 새가 남기는 소리는 올라가서는 안 되고 의당 내려와야 대길하리라

1효 : 처음에 음이 올 때는, 날아가는 새의 상이라면 흉하리라.

2효 : 음이 두 번째에 올 때는, 그 할아버지를 지나쳐서 그 할머니를 만나며, 그 군주에게 이르지 못

해서 그 신하를 만나는 정도는 허물이 없으리라.

3효 : 양이 세 번째에 올 때는, 과하게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하리라. 따라가다가 혹 손상을 입히는 것

은 흉하리라.

4효 : 양이 네 번째에 올 때, 허물이 없으려면 만남을 지나치지는 못하도록 해야 하리라. 왕往하면

위태로우니 필히 경계해야 하리라. 오래도록 정貞하지는 말라.

5효 : 음이 다섯 번째에 오니, 빽빽한 구름이 비를 내리지 않은 채 우리 서쪽 교외로부터 다가오는

상이다. 공이 주살로 그[]를 잡아 구멍에 두는 상이다.

6효 : 극상의 자리에 음이 올 때는, 지나침 [過]을 만나지 못하도록 해야 하리라. 날아오른 새가 떠나면 흉하리라. 이는 재앙과 잘못됨이 겹친다고 할 만하리라.

전체 : 소과는 작은 과오. 이러한 작은 과오가 필요악으로써 초반에는 억제하다 중반부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풀어주다, 후반부에 적절히 다시 통제한다면 이로울(대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작은 일에만 사용 가능하고 큰일에는 사용불가하다. 위험성도 있어 실패하면 재앙과 본인 잘못이 겹치게 된다.